

내년 예산 감액심사 완료...지역별 증액 막판 진통

오늘 처리 시한 ... 예산부수법안 등 일부 이전

합의 불발 대비 수정안 마련... 표대결 가능성

‘국회 선진화법’ 적용 첫해인 올해 여야가 한법 시한 내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해 막바지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예산부수법안 등 일부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합의 불발에 대비해 각각 별도의 예산부수법 수정안을 마련 중이어서 합의 처리가 아니라 본회의에서 ‘표 대결’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 국회법에 따라 예산 법정처리시한(12월2일) 이를 전인 전날 자정까지 예산결산특위에서 예산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정부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하지만, 여야는 이와 별도로 예결위 간사를 중심으로 ‘범외 예산 심사’를 진행 중이다. 여야는 늦어도 이날까지 예산 심사를 마무리해 합의 수정안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막판 증액 심사를 놓고 협상이 지연되고 있어 처리 시한인 2일 밤까지 협의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 관계자의 전언을 종합하면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는 총 3조 5000억원 규모를 삭감한 상태에서 완료됐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증액 심사를 마무리 중이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5000억원 규모의 국고 자원을 합의했고 창조경제 예산 등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 심사 수준 정도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심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쟁점 예산에 대한 삭감심사는 이미 마무리됐고 지역별 증액심사를 진행중인데 이 역시 95% 이상 진행됐다”며 “늦어도 오늘 오후를 넘기지 않고 작업을 마쳐 내일 예산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예산안은 내일(2일) 밤늦게나 처리될 가능성이 100%”라며 “홍문표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예산 심사를 하루 더 연장하는 것을 오늘 다시 발표할 가능성도 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예산안 처리의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부

수법안이다. 여야는 전날 기재위 조세소위, 안전행정위, 복지위 등 답뱃세 등 관련 법이 계류 중인 상임위별로 법안 심사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모두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파행으로 종료됐다.

새누리당은 일단 이날까지 기재위 조세소위 등 핵심 상임위 위주로 협상을 시도해 여야 합의로 수정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새정치연합에서 가계소득 환류 3대 패키지법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이 분명해 절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야당과 합의해 수정안을 내는 것이 목표지만 이제까지 협상 결과를 토대로 별도의 세법 개정안 수정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측은 “나라 세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봐야하는데 새누리당이 기재위를 가동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내일 상정되는 부수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내서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공직박람회 찾은 구직자들

1일 오전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개막한 ‘2014 공직박람회’를 찾은 구직자와 견학 온 학생들이 각 부스를 돌며 상담을 받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與, 공무원연금 개혁·사자방 국조 연계처리 시사

김무성 “정치는 딜”... 여야 협상 현안처리 가능성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비리’ 국정조사 문제를 연계해 처리할 것임을 시사해 주목되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2일) 예정대로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가 여야 대표·원내대표 ‘2+2(연석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사자방 국조에 대한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각에서 여야 간의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국조’ 비리설이 계속 제기되는 데 대해 “정치라는 게 딜 아닌가”라며 여야가 주고받기식의 협상을 통해 현안을 처리할 가능성을 열어놔다.

특히, 김 대표는 지난달 28일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이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을 ‘잘한 일’이라고 호평한 데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해 여야가

한 마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새정치연합은 하루빨리 대안을 마련해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 시절 마련했던 공무원연금개혁안과 현재 새누리당 개혁안이 상당부분 유사하다고 언급하며 “여야를 조율해서 지금까지 무려 20년간 미뤄온 공무원연금 개혁을 제대로 꼭 이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국조 비리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여권이 역점을 두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조속히 성사

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인 새정치연합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이들 현안의 연계 처리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강했던 여당이 입장을 급진화한 것은 최근 청와대의 ‘정운회 동향보고’ 문건 보도로 시작된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논란 사태를 감안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여야는 지난달 28일 예산안 처리 등에 대해 합의하면서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의 예비심사 결과 일부 사업 예산이 대규모 삭감된 채 예결위에 상정됐기 때문”이라고 합의한 바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희호 여사 방북 내년 5~6월로 연기

“추운 계절 방북 불가능”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시기가 내년 5~6월 중으로 연기됐다.

김대중평화센터(이사장 이희호)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희호 이사장은 연내 방북을 희망했지만 의료진의 간곡한 권유를 받아들여 방북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 여사는 지난 11월21일 북측과 실무 접촉한 이후 주치의의 비탄한 의료진과 방북 시기를 검토했지만, 의료진은 “추운 계절에 방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사는 올 여름 폐렴으로 두 달여간 투병생활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중간간부가 끊임없이 위·아래 소통해야”

이낙연 지사 ‘중대장 역할론’ 강조 조직 다잡기

이낙연 전남지사가 ‘중대장 역할론’을 강조하며, 과장급(4급 서기관) 간부들의 선전을 당부했다. 민선 6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새해를 앞두고 ‘조직 다잡기’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지사는 1일 정례조례에서 “2차 세계대전 참전 병사들에게 ‘무엇을 위해 싸웠느냐’고 질문한 결과 대통령, 성조기, 자유와 인권 등에 비해 놀랍게도 ‘중대장’이란 답변이 많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인간은 숭고한 가치 때문에 살지만 이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행동의 요인을 제공하는 것은 ‘중대장’이란 말로 압축할 수 있는 중간간부”라고 강조했다.

이 중간간부가 해당 과의 업무를 파악하며, 도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끊임없이 위·아래로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직 내부에 팽배한 ‘부서 이기주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이 일은 내 것이 아니다”라기 보다는 ‘내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는 등 자신의 일을 확대 지향적으로 바라봐 실과 간 벽을 무너뜨리겠다는 자세로 일 해줄길 바란다”며 “민선 6기 브랜드시책으로 ‘가고싶은 섬’과 ‘아름다운 숲 만들기’ 사업을 내놓았는데 ‘섬에 나무 심기’ 사업을 하는 경우 어느 한 쪽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가 나서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선심성 예산 과감히 삭감할 것”

김옥기 전남도의회 예결위원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원 사용

2일부터 3일간 계속되는 민선 6기 전남도의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옥기(나주2)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심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과감한 삭감을 강조하고 나선데다 지난주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 일부 사업 예산이 대규모 삭감된 채 예결위에 상정됐기 때문이다.

김옥기 전남도의회 예결위원장은 1일 “2일부터 오는 5일까지 열리는 예결위 내년도 예산 심의는 주민숙원사업 우선 반영, 관행적인 예산편성 행태 개선, 신규 및 계속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효율성 검토 등을 기준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지역경제와 재정여건이 어려

울 것으로 예상해 어느 때 보다 긴축재정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경상경비, 행사·축제경비에서 절감한 예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으로, F1대회 미개최에 따른 예산을 지역주민 숙원사업예산으로 각각 쓰도록 하겠다”며 “선심성, 일회성, 관행적인 예산에 대한 감축으로 중국과의 FTA체결로 위기를 맞고 있는 농어업에 투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행정환경위원회는 2015년도 전남도 예산안에서 전남도립대 전출금 92억5000만원 가운데 12억원(12.9%)을 삭감했다. 전남도립대학이 특별회계로 요구한 사업 중 무려 18건이 전액 또는 부분 삭감됐다. 대학 인력운영비는 요구액 73억여원 가운데 4억여원이, 공공운영비는 1억2000만원이 삭감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경품행사

자산건전성 8년연속 1등급

경영평가대회 "대상" 수상 기념

행사기간 : 9월 1일 ~ 12월 31일(4개월)

자격대상자점용 응모권 및 기념품 증정 (축적복권기념품 포함)

선물1

(개막식 경품 응모권 증정)

1등 황금열쇠수금1냥(1명)

2등 가전제품 100만원 상품권(2명)

3등 제주도 항공권 및 숙박권 (동반 1인 포함)(3명)

4등 온누리상품권 5만원(4명)

5등 온누리상품권 3만원(100명)

* 총액 당첨시 상차 출석으로 증정, 폐쇄회로 영상인상

선물2

(기념품(택1))

[핸드크림]

[치약세트]

선물3

(개막식 축적복권 증정(100%당첨))

[통장지갑]

[클릭스틱 밀폐용기세트]

[세탁리프팅 냄비]

* 상품은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격기준

- 출자금 10만원 이상 납입고객

- 참가비용 15000원 이상 가입고객

- 대출 1,000만원 이상 상환고객

- 생량금제, 자동사보형 가입고객

- 전자금융 사용자

- 자물치세 3년 이상 상환자

- 체크카드 신규자(1회 이상 이용고객)

* 금융추진위원회 결성유지 및 이용 기여자

* 상기 자격기준은 회원에 한함

경품추첨일

2015년 정기총회일(2월 예정)

(5등 경품 선 추첨후 공고)

MG 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 062)223-8007, 232-7251 대인동 한미소방 1층

충장지점 : 062)223-7217, 223-7218 충장로 5가 입구

2015년 신입생 모집

상해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무역학과

홈페이지 www.suibe.co.kr

2015학년도 9월학기 입학생 모집요강

모집 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201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검정고시 가능

모집 기간 ▶ 2015년 2월28일 까지 (중국어 미학습자 신청가능)

모집 인원 ▶ 30명

수강 기간 ▶ 2015년 3월~8월 (6개월) (1일 6시간, 주30시간, 총720시간 이수)

강의 내용 ▶ 중국유학준비과정 중국어 집중훈련 수료 후 중국대학 입학

성공 중국유학 내신 NO! 수능 NO!

GoChina

www.gochina.co.kr

자강전환주세요!!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233-9582 (통) 구오탈리